

폭발적 가속력·안락한 승차감 '동급 최강'

3년만에 신차급 파격 변신 대성공
강렬해진 외모에 정숙성도 뛰어나
맑는 족족 반응, 저속서도 파워풀
전자식변속다이얼 등 편의성 강화

누가 셀토스를 이길 수 있을까. 국내 소형 SUV 시장의 절대 강자인 기아 셀토스가 신차급 변화를 거쳐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중·대형 SUV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셀토스는 지난해에만 4만대 이상이 판매되며, 굳건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3년 만에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돌아온 더 뉴 셀토스는 얼마나 더 매력적일까. 서울 서초구 서울웨이브 아트센터에서 경기 남양주의 카페까지 왕복 64km 구간에서 더 뉴 셀토스 1.6 가솔린 터보 그레비티 모델을 시승했다.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강화된 정숙성

디자인과 편의 및 안전사양의 진화도 반가웠지만, 더 뉴 셀토스를 시승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주행 성능의 개선이다.

시승차인 1.6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배기량은 1591cc에서 1598cc로, 최고 출력은 177마력에서 198마력으로 향상되었다. 변속기는 7단 DCT(듀얼클러치) 변속기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꿨다. 최대 토크는 변함없는 27.0kgf.m다. 얼마나 달라졌을까 싶지만, 저속에서의 가속 성능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기본적으로 토크가 높은 데다 마력이 더 올라가면서 중·고속 영역에서 가속 페달을 밟을수록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더 폭발적으로 튀어나간다. 변속 응답성도 빨라져 소형 SUV를 타는 즐거움을



더 뉴 셀토스는 업그레이드된 파워트레인과 강화된 편의사양을 통해 중형 SUV 이상의 만족도를 준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등을 적용해 더욱 하이테크하게 변화한 인테리어.

사진제공 | 기아

거움을 펀드라이빙에서 찾는 이들이라면 확실히 만족할만한 변화다.

전체적인 주행 질감과 정숙성도 중형 SUV 수준으로 높아졌다. 전면 유리창에 차음 글라스를 적용했고, 차량 곳곳에 방음재를 추가해 풍절음과 로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수입차 뛰어넘는 디자인과 편의사양

실내외 디자인의 변화도 셀토스를 타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요소다. 외관 디자인은 소폭 개선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변화의 폭이 더 크게 느껴질 만큼 완성도가 높다.

시승차는 그레비티 트림인데 다크 메탈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및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등을 통해 강렬한 외관을 완성했다.

운전석에 앉아보면 동급 수입 SUV가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인테리어가 개선됐다.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이 더 뉴 셀토스의 실내를 완전히 다른 차로 변신시켰다.

중형, 대형 SUV와 비교해도 인테리어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뒤질 것이

없다.

파워 테일게이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애프터 블로우, 속도 제한 보조,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 빌트인 캠 등 소비자 선호하는 옵션들을 대거 추가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때문에 차량 가격은 200만 원 이상 올랐지만, 중형 SUV 수준의 만족감을 주는 변화의 폭을 감안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다만 연비에 대한 아쉬움은 남았다. 중형 세단급 파워트레이스로 개선된 더 뉴 셀토스 1.6 터보 모델의 공인 복합 연비는 12.8km/L(16인치 휠 타이어 기준)다. 시승차인 18인치 휠을 장착한 그레비티 모델의 경우 공인 복합 연비는 11.8km/L인데, 왕복 64km 구간에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한 후 기록한 연비는 9.7km/L였다.

남양주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포함 2025년까지 전기차 13종 출시, 남미 시장에 볼트EUV, 블레이저EV, 이리눅스 EV 출시 등 북미 및 중국 시장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위한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유럽과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에도 추가적으로 전기차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로베르토 램펠 한국지엠 사장은 “GM 한국사업장은 GM의 전·전동화 비전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GM은 2022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출시 예정인 고효율, 친환경적인 차세대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한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CUV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탁월한 제품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GM, 전동화 전환 ‘풀악셀’…45조원 공격적 투자

“전기·자율주행차 미래 기술 선점”

제너럴 모터스(이하 GM)가 기후변화와 교통체증, 도로안전 등 전 세계 고객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춰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전기 및 자율주행차 기술에 350억 달러(약 4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실판 아민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7월 2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에서 GM 해외사업부문에 속한 각 시장별 최고 리더십을 대상으로 진행된 ‘US 드라이브 프로그램’에서 “GM의 탄소배출 제로, 전(AI)-전동화 비전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GM



GM이 전 세계 모빌리티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전기 및 자율주행차 기술에 3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GM의 EV 포트폴리오

사진제공 | 한국지엠

은 여느 때보다 빠르게 전 세계 고객에게 GM의 신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쉐보레 블레이저 EV의 역동적인 디자인이 공개되었고, 벌써 7만

3000명이 넘는 고객들이 GMC 허머 EV 사전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GM은 쉐보레 볼트 EV와 EUV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까지 볼트 EV와 EUV의 판매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GM은 한국을 비롯해 중동과 남미 등 대규모 해외시장에서 중단기적인 전기차 출시계획을 발표할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GM은 선제적으로 한국시장에 2025년까지 전기차 10종 출시, 중동시장에 볼트EUV, GMC 허머EV, 캐딜락 리릭(LYRIQ)

자동차

스포츠동아 2022년 8월 1일 월요일 11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 협회장 강신호)가 ‘2022 FIA 포뮬러E 챔피언십 서울 E-Prix’를 진행할 오피셜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친 레이스 운영 교육을 완료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포뮬러E 서울 대회’ 준비 착착 KARA, 레이스 운영교육 완료

13일부터 이틀간 잠실종합운동장서 열려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협회장 강신호)가 ‘2022 FIA 포뮬러E 챔피언십 서울 E-Prix’를 진행할 오피셜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친 레이스 운영 교육을 완료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뮬러E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친환경 전기차 레이스로 13~14 양일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한국에서의 첫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가 10~14일 운영하는 ‘서울페스타 2022’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기회가 제공되는 글로벌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는 국제자동차연맹과 함께 이번 대회의 레이스 승인과 임시 시가지 서킷 인증 등 공인 업무를 맡는다.

협회는 또 대회 저작권자인 ‘포뮬러E레이스오퍼레이션사’(FERO)사의 의뢰로 레이스 진행 오피셜 조직 및 선수를 대상으로 한 트랙 내 미디어캠을 직접 운영한다. 협회는 “이번 서울 레이스가 2013년 F1 한국 그랑프리 이후 약 10년 만에 재개된 FIA 챔피언십급 대회의 국내 유치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안정적 경기운영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트랙 및 피트 안쪽에서 벌어지는 경기와 경주차 사고 대응, 판정 등 스포츠 관련 임무를 FIA와 함께 수행하고 입장권 판매 및 경기장 조성, 각종 이벤트 진행, 중계권 및 미디어 관리 등 상업적 영역은 한국 법인인 포뮬러E코리아사가 담당한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관계자는 “대형 국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레이스 운영 인력들의 집중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 포뮬러E뿐 아니라 국내 대회 경기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1일 (월) 음력: 7월 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끝까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교제비를 많이 쓰게 된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전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삼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어떠한 위협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이 온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엔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이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하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용파생을 만나면 해결된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돼지피가 귀인이다.	대체로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따라서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호랑이 피와 말피를 만나라.	민둥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온산을 초목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바람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동아The sportsdonga제387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